



6. '자료 1·2'에 대한 '학생 1·2'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p><b>[자료 1]</b> 갑오개혁 때 백정은 법적으로 천민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차별을 겪었다. 당시 백정들은 돈이 있어도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심지어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는 붉은 점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p>	<p><b>[학생 1]</b>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양한 사회현상에 적용할 수 있겠군.”</p>
➔	
<p><b>[자료 2]</b> 숲을 이루는 나무, 물, 흙,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공존한다. 이를 통해 숲의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된다.</p>	<p><b>[학생 2]</b> “생태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거야.”</p>

- ①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더라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우리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래문화에 대한 집착은 물론 배타적인 태도 역시 갖지 말아야 한다.
- ③ 자연이 인간에게 허용한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한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
- ④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는 혐오 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되려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버리고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

7. <보기>의 요구를 모두 충족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회에서는 안전사고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캠페인에 활용할 문구를 공모합니다. 먼저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비유적으로 언급한 후,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교실 창턱에 걸터앉아 노는 친구는 스티트맨과 같습니다. 교실 창턱은 걸터앉아서 놀아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 ② 함부로 사용하는 실험용 약품은 아이 손에 쥐어진 칼입니다. 교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 둡시다.
- ③ 층계 난간에 앉아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이 순식간에 절벽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 ④ 현관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손이 쥘 수 있습니다. 닫히는 출입문의 힘은 당신의 손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⑤ 점심시간 때마다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개미 떼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결과

<p>1: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의 빈도</p>	<p>2: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의 이유</p>
--------------------------------	--------------------------------

(나)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생활 전반에 비속어와 은어 등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대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에서 이러한 욕설과 비속어, 은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신문 -

(다)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확산되는 원인

- ①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 실태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 ② (가)-1과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부각한다.
- ③ (가)-2, (나),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늘어난 이유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언어가 불건전해진 원인을 고려하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 건전한 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9. <보기>는 '가족 내 갈등 심화와 그 해소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제

II. 본론1 : 갈등 심화의 원인

1. 가족 차원

가. 대화 시간 부족으로 인한 유대감 약화

나. 가족 관계를 약화시키는 경쟁적 사회 분위기 ..... ㉠

2. 사회 차원

가.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 부족

나.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인식 약화

다. 이웃 가족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미흡 ..... ㉡

III. 본론2 : 갈등 해소 방안

1. 가족 차원

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강화 ..... ㉢

나.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돌아보기 위한 노력

2. 사회 차원

가. 이웃 가족들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 ㉣

나. 경쟁적 사회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캠페인 전개

IV. 결론 :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 촉구 ..... ㉤

- ①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2-나'와 맞바꾼다.
- ②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은 'II-1-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화 시간 확보를 통한 유대감 강화'로 바꾼다.
- ④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전통문화 회복 운동 전개'로 바꾼다.
- ⑤ ㉤은 본론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가족 내 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 차원과 사회 차원의 노력 촉구'로 바꾼다.

10. <보기>는 '매기다'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값이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ㄴ. 일정한 숫자나 표식을 적어 놓다.

- ① ㄱ : 가을에 출하되는 쌀을 등급대로 가격을 매겼다.
- ② ㄱ : 관세청에서는 그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겼다.
- ③ ㄴ : 선생님은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 등급을 매겼다.
- ④ ㄴ : 그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장부를 보관하였다.
- ⑤ ㄴ : 심사위원장은 응모작에 매긴 점수를 합하여 대상을 결정하였다.

11. 학급 문집에 실을 글의 초고이다.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과테말라에서는 옛날부터 걱정이 많아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이 자신의 걱정을 '걱정 인형'에게 털어 놓은 뒤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 과테말라에는 걱정 인형과 관련된 풍습 외에도 다양한 민간 풍습이 전해 내려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겉쟁이 빌리>는 이 인형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빌리는 소심한 성격 ㉡ 덕분에 모든 일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빌리에게 할머니는 걱정 인형을 선물합니다. ㉢ 이 걱정 인형으로 있고 지내던 빌리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 인형'의 걱정이 마음에 걸렸습니 다. 그래서 빌리는 '걱정 인형'의 걱정을 대신하는 인형을 만들어 그 걱정을 해결합니다.

이제 빌리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될까요? ㉣ 아마 빌리는 또 다른 인형이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 걱정 인형은 빌리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 그리고 빌리의 걱정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형에만 기대다면 우리도 '빌리'가 되지 않을까요?

- ① ㉠은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은 단어의 쓰임을 고려하여 '때문에'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③ ㉢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있고' 앞에 '걱정을'을 삽입해야겠어.
- ④ ㉣은 문단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은 문맥적 흐름을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고쳐야겠어.

12.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에 나타나는 '-았-', '-았-', '-였-'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어제는 내내 공부를 하**었다**.

ㄴ. 나사를 세계 조**였다**.

ㄷ.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ㄹ.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고**, 철수는 휴게실에서 음악을 들**었다**.

ㅁ. 그는 학생이**었고**, 뒤에 오는 부부는 그의 부모**였다**.

- ① ㄱ~ㅁ의 서술어에 나타난 '-았-', '-았-', '-였-' 속에는 모두 과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② ㄴ에서는 서술어의 기본형이 '조이다'이고, ㄷ에서는 '먹이다'이므로 두 경우 모두 '-였-'이 포함되어 있다.
- ③ ㄱ과 ㄷ의 서술어에 나타난 '-였-'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④ ㄹ로 보아, 어간 뒤에 '-았-'이 아니라 '-였-'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양성 모음이 쓰이지 않았을 때이다.
- ⑤ ㅁ으로 보아 '-이었던-'의 준말인 '-였-'은 '-이었던-'을 쓸 때와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少年)이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 가벼운 날개 밑에 머-리리 수평선(水平線)이 층계(層階)처럼 낮더라.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애(斷崖)의 허리에  
개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오늘 ㉢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미운 너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  
- 김기림, 「추억(追憶)」 -

(나) 흰 나비가 소매도 걷지 않고  
㉡ 봄비를 건너간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그 고요한 날갯짓에는  
보이지 않는 격렬함이 깃들어 있어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천 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다  
모든 날개는 몸을 태우고 남은 재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면서도  
걸음이 가볍고 가벼운 저 사람  
슬픔을 물리치는 힘 고요해  
봄비 건너는 나비처럼 고요해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 그는 남몰래 가졌을까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  
- 나희덕, 「재로 지어진 옷」 -

(다) I  
시(詩)를 쓰는,  
이 아래층에서는 아낙네들이  
계(契)를 모은다.  
목이 마려워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층층대는 아홉 칸.  
열에 하나가 부족한,  
발바닥으로  
지상(地上)에 하강(下降)한다.

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疾走)한다.

달려도 달려도 열에  
하나가 부족한  
그것은  
골인 없는 백열경주(白熱競走).

I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면  
상층(上層)은  
공기가 희박했다.

- 박목월, 「상하(上下)」 -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의 주된 대비 양상을 정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대비'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거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어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자주 쓰인다. (가)~(다)에서도 이러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비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 | (가)      | (나)    | (다)    |
|----------|--------|--------|
| ① 시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 ② 시간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 ③ 심상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 ④ 공간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 ⑤ 공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14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시인이 (다)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와 (다)에서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과 대면하며 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에 드러난 어려움이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에 해당한다면, (다)에는 이와 더불어 생활인으로서의 고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와 (다)는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다)의 화자가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모습은,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갯짓'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다)에서 '지상에 하강'하는 화자의 모습은,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 ③ (다)의 화자가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하고 나면, '흰 나비'와 같이 '몸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 ④ (다)의 화자가 '골인 없는 백열경주'를 하는 모습에서, '슬픔을 물리'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다)의 화자가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1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간이 일직선상에서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보는 것과는 달리 신화적 시간관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간 인식에 따르면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귀를 통해 인간은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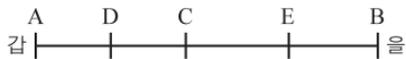
- ① ‘언덕’이라는 동일한 배경은, ‘너와 나’가 ‘유년 시절’로 회귀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 ②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라는 표현에서, ‘오늘’이라는 현재적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신화적 시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④ 현재의 시간을 ‘노을’에 대응시켜 ‘아침’이었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에서, 인생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알 수 있다.
- ⑤ ‘꿈 많은 소년’이었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신화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과거로의 회귀에 해당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모순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 어순을 도치시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 17 ~ 1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 간의 통상이나 외교 협상에서는 협상 당사국 사이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내 관련 집단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 간의 협상 결과는 국내의 기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하며 퍼트남은 ‘양면 게임 이론’을 발표하였다. 퍼트남의 양면 게임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윈셋’이다. 윈셋은 국제 협상의 상황에서 국내적 기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이라 정의된다.



위 그림에서 선분 AB는 협상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 이익의 전체 크기를 나타낸다. 이익의 분배에 관한 합의가 점 C에서 이루어진다면 갑이 얻는 이익의 크기는 선분 AC, 을이 얻는 이익의 크기는 선분 BC가 된다. 여기서 D는 갑이, E는 을이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최후 협상 지점이라 하자. 그러면 갑은 B와 D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하든지 기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D가 갑의 윈셋이 되며, 을은 A와 E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하든지 기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E가 을의 윈셋이 된다. 이때 쌍방의 윈셋이 겹치는 D와 E 사이가 합의 가능 영역이 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윈셋이 클수록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협상은 윈셋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 윈셋의 크기를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국내

집단에 공개적인 약속을 하거나 협상안을 정치 쟁점화하여 여론의 흐름을 강경한 쪽으로 유도하면 자국의 윈셋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윈셋의 크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축소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여 협상 담당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총체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상 결과에 따른 이득을 재분배하거나 문제의 성격을 국가 안보에 중대한 것이라는 식으로 전환하여 자국의 윈셋을 확대할 수 있다.

상대국의 윈셋을 대상으로 한 전략도 있다. 상대국이 국내적 이유로 선호하고 있는 이슈를 자국이 원하는 이슈와 연계할 경우 가능하지 않았던 협상 결과가 국내적으로 수락되고 비준될 수도 있다. 또한 정책 결정자가 상대국 내 집단에 직접 호소하여 협상 사안에 대한 기대나 그 사안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면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 관련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양면 게임 이론의 핵심적 개념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양면 게임 이론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비판한 후,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양면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형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양면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을 소개한 후, 그에 근거하여 기존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18.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점]

- ① 정책 결정자가 상대국 내 집단에 직접 호소한다.
- ② 자국과 상대국의 협상 전략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 ③ 국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협상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④ 상대국이 선호하는 이슈와 자국이 원하는 이슈를 연계한다.
- ⑤ 협상안을 정치 쟁점화하여 여론의 흐름을 강경한 쪽으로 유도한다.

19.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국과 B국은 36해리의 황금 어장 수역을 놓고 어업 협상을 벌이고 있다. A국 협상자는 자국의 해안에서 16해리까지, B국 협상자는 자국의 해안에서 17해리까지를 최후 합의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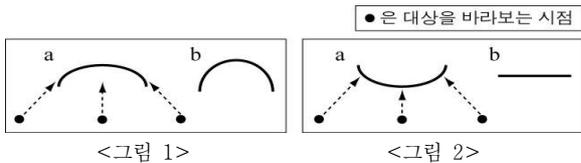
- ① A국의 윈셋은 자국 해안에서 16해리 떨어진 지점부터 B국 해안까지에 해당하군.
- ② A국의 협상자가 18해리까지로 제시해도 협상 가능성은 있군.
- ③ B국의 협상자가 최후 협상 안을 18해리로 변경하게 되면 B국의 윈셋은 확대되겠군.
- ④ A국과 B국의 협상 가능한 수역의 최대치는 3해리가 되겠군.
- ⑤ A와 B국 어민들의 항의가 있다면 양국 협상 담당자들의 재량권은 축소되겠군.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흔히 가까운 쪽의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곤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정립된 일점원근법에 기초한 것이다. ㉠이 시대의 화가들은 3차원적 대상을 2차원적 평면에 정확하게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을 하나로 고정시킨 후, 보이는 장면을 평면에 그려 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성화(聖畵) 화가들은 세속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나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그렸는데, 이 그림들은 일점원근법과는 다른 표현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러시아 성화에서는 인물과 사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할 때는 사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드러낸다.

또한 그들은 초월적 존재인 신이 세상의 곳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선을 표현하다 보니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일점원근법에 서와는 달리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성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탁자나 의자 등을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원형의 탁자를 성화에 그린다고 가정하자.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올려다보지 않는 한, 원형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타원에 가까게 보인다. 그 타원을 반으로 자르면 윗부분은 그림 1-a, 아랫부분은 그림 2-a와 같은 모양이 된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곳곳에 존재하므로, 앞에서 본 모양뿐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서 본 모습도 표현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 평면에 나타내려다 ㉠보니, 그 윗부분은 그림 1-b와 같이 더욱 구부러지게 된다. 같은 원리에 따라 타원의 아랫부분도 안쪽으로 굽히면, 윗부분과는 반대로 그림 2-b와 같이 편평하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하나의 반원이 만들어지는데, 러시아 성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원형의 탁자는 사실 원형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왜곡으로 생각되겠지만, ㉡당시의 감상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에 표현된 인물과 사물의 형상이 본래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세상의 곳곳을 향하는 초월자의 시선이 자신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화의 감상을 통해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체험했던 것이다.

20세기 초에 러시아 성화를 처음 접한 ㉢서구의 미술사학자들은, 러시아 성화가 원근법이 없는 원시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성화 화가들은 오히려 확고한 표현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의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 고유의 표현 방식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20.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와 공간에 따른 예술의 차이  
- 이탈리아와 러시아 회화를 중심으로
- ②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과 그 의미  
-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방식
- ③ 러시아 성화의 신비로움  
- 현실성과 초월성의 이중주
- ④ 러시아 성화의 원리와 이해  
- 원근의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움
- ⑤ 시점에 따른 회화의 변화  
- 원근법의 역사적 계승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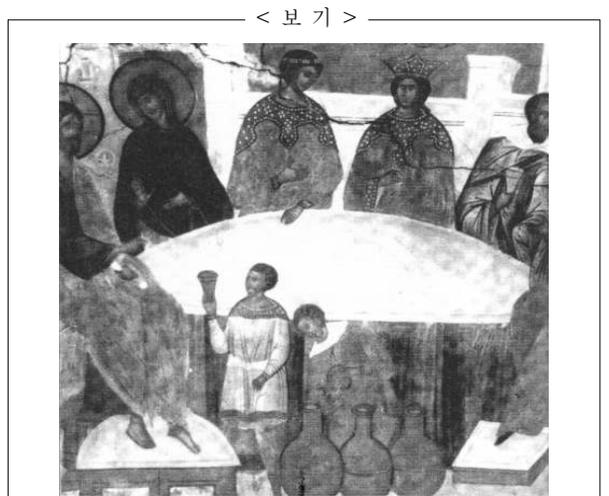
21. <보기>에 제시된 ‘푸코’의 견해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푸코는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의 서구 사상의 역사를 ‘에피스테메’의 연속이 아닌 불연속, 계승이 아닌 단절, 진보가 아닌 반복으로 본다. 여기에서 ‘에피스테메’는 특정한 시대의 사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궁극적 원리를 뜻한다.

- ① ㉠의 에피스테메는 ㉢보다 ‘진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은 자신들의 에피스테메로 ㉡의 작품을 감상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과 ㉡는 서로 유사한 에피스테메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피스테메의 ‘반복’으로 인해 ㉡는 ㉢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⑤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의 에피스테메는 ㉢에게 ‘계승’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위 글을 읽고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예수(왼쪽에서 첫 번째)와 성모 마리아(왼쪽에서 두 번째)가 참석한 어느 혼인잔치 장면을 묘사한 러시아 성화의 일부이다.

- ① 이 성화를 본 당시의 감상자들은 인물들이 반원의 형태가 아닌 원형의 탁자에 둘러 앉아 있다고 이해했겠군.
- ② 탁자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할 왼쪽 첫 인물의 전신을 드러낸 것은 대상을 성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였겠군.
- ③ 탁자와 같은 사물과 인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사실에서, 화폭 안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왼쪽의 두 인물에만 그려진 머리 주변의 후광은, 이들이 다른 인물에 비해 상징적으로 중요함을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⑤ 탁자 앞에 있는데도 다른 인물에 비해 작게 표현된 하인들의 모습에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23.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이런 노래는 들어 본 적이 없다.
- ② 예전에 내가 이 식당에 와 봤나 보다.
- ③ 주울까 봐서 창문을 열어 놓지 않았다.
- ④ 공부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나게 된다.
- ⑤ 물건을 살 때는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인적 자유주의자는 개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에 의해서만 자신을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다른 사람의 행위나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데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는 공동체적 도덕의식이 들어설 ㉠ 여지가 없다.

공동체주의자의 한 사람인 맥킨타이어는 현대 사회가 개인적 자유주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도덕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을 거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의 ㉡ 복권을 통해 개인적 자유주의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최고 선(善)인 행복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덕(德)을 그 선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은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선을 구성하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덕이 실천 활동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실천은 그 활동에 ㉢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그 활동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활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실현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연관성이 없을 때는 덕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맥킨타이어는 실천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천에서 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맥킨타이어는 삶을 ‘이야기’ ㉣ 양식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탄생, 삶, 죽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 존재한다.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그가 속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상호 작용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맥킨타이어는 개인적 자유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

에 공동체적 도덕의식의 중요성을 ㉤ 환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맥킨타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에서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도 있다.

24. 위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 자유주의자들의 생각 ..... ①

↓  
맥킨타이어의 주장

- 공동체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의 관계 ..... ②
- 덕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 행위 ..... ③
- 실천의 과정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이유 ..... ④



맥킨타이어의 주장이 갖는 의의와 한계 ..... ⑤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맥킨타이어는 삶이 한 편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다.
- ② 개인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를 중시한다.
- ③ 맥킨타이어는 선의 실현과 덕의 획득은 항상 일치한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선을 구성하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맥킨타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

26. ‘맥킨타이어’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  
라우 독일 대통령은 2000년에 있는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독일인이 한 일을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며 사과했다.

- ① 개인과 공동체가 만들어 온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독일 대통령은 공동체로서의 독일과 개인으로서의 독일인을 구분하고 있군.
- ③ 독일 대통령은 ‘덕’의 획득을 위해 이스라엘 국민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군.
- ④ 독일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행동이라 볼 수 있군.
- ⑤ 개인의 도덕적 의무와 자발적인 선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군.

27.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
- ② ㉡ :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 ③ ㉢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 ④ ㉣ : 뛰어난 식견이나 건전한 판단.
- ⑤ ㉤ :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28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재혼해 독자인 '나'를 낳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귀향을 결심하고, '나'는 아버지의 귀향길에 동행한다. 아버지는 고향의 어느 보리밭 돌무더기를 삼으로 걷어내면서, 자신이 6·25 전쟁 때 인민군의 편에 서서 동네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렸음을 털어놓는다.

행색이 마을 사람들인 듯싶은 세 사람의 남자가 그 돌다리를 건너 우리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묘한 예감으로 몸이 떨림을 의식하면서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따라 마을을 지나는 인민군 패잔병도 없었고(있어왔자 체가짓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마는.....) 구름 잔뜩 낀 하늘은 쉽게 어둠을 몰아왔다.

눈이 뒤집힌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부모처자의 얼굴은 한번 봐야 한다며 그를 안방 문 앞에 세웠다. 재갈이 물린 채 자기를 쳐다보는 집안 식구들의 그 처연한 눈빛.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맥락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까지 끌려왔던 거다.”

아버지의 얼굴에 땀이 번질거렸다. 구덩이는 이미 허리 높이 만큼 깊어져 있었고 그는 삽질을 아주 조심조심 해 나갔다. 징검다리를 건넌 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 이쪽 보리밭으로 오르는 계곡으로 접어든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린 재갈을 풀어주지 않더구나.”

그것만 풀어주면 목 놓아 영영 울고 싶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를 백 번 만 번이라도 외쳐 살고 싶었다. 난 사대 독자야, 내가 죽어선 안 돼—그렇게 외쳐 그네들의 동정을 받고도 싶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물린 재갈을 풀지 않았다.

손 묶인 건 풀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그는 행하니 입을 벌린 구덩이를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산 채로 밀어넣을 모양이었다. 그는 풀린 두 손을 들어 입에 물린 재갈을 벗기려고 했다. 그러나 완강한 팔목들이 그의 양어깨를 감싸고 있어 그것은 불가능했다.

빨리 쳐넣어!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필사의 힘을 다해 발버둥쳤다. 구덩이로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덩이 속으로 누군가 풀썩 떨어져내렸다. 누구야? 놀란 목소리로 누군가 소리 질렀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선 얇은 신음 소리가 잠깐 들렸을 뿐이었다. 한 사람이 성냥을 그었다. 여자였다. 누군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 엎어진 여자를 하늘을 향해 정면으로 뉘었다. 얇은 홀저고리 하나인 그네 젓가슴 왼쪽에 칼이 꽂힌 채였다.

죽었어!

밭의 사내가 구덩이에서 기어오르며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리밭에 놓은 채 망연자실 구덩이 속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귀에 속삭였다.

이 몫쓸 것아! 네 처가 대신 죽은 거야.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왜 이러구 있어? 이 죽일 놈아! 어서.....!

아버지는 삽을 구덩이 밖으로 내던진 채 맨손으로 흙을 파

고 있었다. 마을에서 올라온 세 사람이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는 기척도 모른 채.

한 사람은 탐골 박씨였고, 사십 전후가 돼 보이는 두 사람은 그 차림새로 보아 이 마을 사람이 분명한데 내게는 초면인 얼굴들이었다.

“이보게, 만배! 거 뭘 허구 있는 게여?”

아버지가 몸을 일으켰다.

“자네, 이 사람들 얼굴 보면 모르겠나?”

이처럼 놀란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본 일이 없다.

“놀라긴, 자네 처남들이야!”

아버지가 말해 준 그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의 얼굴을 나는 곧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빼앗아온 그 처녀의 남동생들은 나를 향해 조금 웃어 보였다.

“매형, 올라오세유!”

그들 형제는 구덩이 속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님은 우리 둘이서 몇 해 전에 탄 테다 모셨는걸유. 바로 저기.....”

그들 중의 하나가 우리들이 서 있는 보리밭 저쪽 좀 더 양지바르고 전망 좋은 데의 바로 그 무덤을 가리켜 보였다.

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네한테 하지 말라구 해서.....”

탐골 박씨가 목덜미를 긁으며 씩씩하게 웃자, 그중 좀 연장인 듯싶은 쪽이,

“동네에서는 매형이 고향엘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곤 매형이 제일 먼저 와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고 했어요. 와 가지곤 이렇게 매형 손으로 직접.....”

다시 탐골 박씨가 받아,

“글쎄, 이 사람들 얘기로 자네가 여길 제일 먼저 와보지 않음, 자네 이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했다지 뭐냐!”

나는 아버지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서 발가락 사이로 비집고 올라오는 흙의 찬 촉감을 즐기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외삼촌뻘이 되는 두 사람은 최씨집 오대 독자인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들의 역센 손아귀에 손을 잡힌 채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귀향을 진정 반기고 있구나—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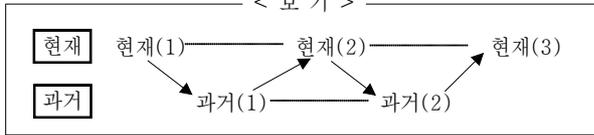
나는 내 출생 비밀의 현장인 흙더미 위에서 땅의 찬 서기(瑞氣)가 심장까지 힘차게 뻗쳐오름을 감지했다.

- 전상국, 「맥(脈)」 -

28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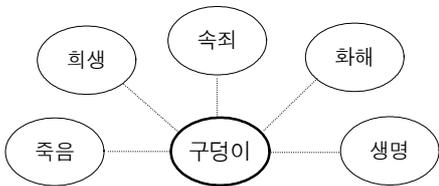
- ① ‘여자’는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 ②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은 ‘나’와 초면이다.
- ③ ‘완강한 팔목들’은 ‘아버지’를 끌고 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 ④ ‘나’는 ‘탐골 박씨’를 통해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 ⑤ ‘세 사람의 남자’는 ‘김 구장의 두 아들들’과 ‘탐골 박씨’를 가리킨다.

29. 위 글의 시간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1)~(3)은 현재대로, **과거** (1)과 (2)는 과거대로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 ② **현재** (1)과 (2)에서는 ‘아버지’의 언행에 대한 서술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서술도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과거** (1)과 (2)에서는 서술의 주체를 **현재**와 달리하고 있다.
- ④ **과거** (2) 다음에 한 행을 뺄으로써,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현재** (1), (2)와 **과거** (1), (2)가 맞물리면서 **현재** (3)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30. 위 글을 바탕으로, ‘구덩이’가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의미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죽음 : ‘마을 사람들’이 파 놓은 ‘구덩이’는 ‘아버지’에게 죽음과 절망의 공간이었다.
- ② 희생 : ‘여자’의 희생으로, ‘아버지’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 ③ 속죄 : ‘아버지’는 ‘돌머더기’를 걷어내고 흠을 파내는 ‘땀’의 노고를 통해, ‘나’의 속죄와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④ 화해 :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이 ‘구덩이’ 속의 ‘아버지’에게 내미는 손은, 인물들 간의 화해를 의미한다.
- ⑤ 생명 : ‘구덩이’에서 파낸 ‘흙더미’에서 ‘나’는 ‘심장까지 험하게 뻗쳐오’르는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

31. 발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 ‘……’에 생략되었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네를 거들고 싶어서 왔네.
- ② 미안하지만, 자네가 너무 파했구먼.
- ③ 말을 못했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어쩔 수 없었네.
- ④ 말을 안 했네. 자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네.
- ⑤ 말을 안 했네만, 그래도 자네가 괜한 일 한 것은 아니구먼.

[32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찬비는 국화에 어울리지 않게 내리고 [A] 寒雨不宜菊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구나 小尊知近人  
 문을 닫으니 붉은 잎 떨어지고 閉門紅葉落  
 시구를 얻으니 흰 머리 새롭구나 得句白頭新  
 정다운 벗 생각할 때는 즐겁다가 歡憶情親友  
 적막한 새벽 되니 시름 더하네 愁添寂寞晨  
 그 언제나 반가운 눈길 마주하고 何當靑眼對  
 크게 웃으며 양춘(陽春)을 볼거나 一笑見陽春  
 - 박은(朴閔), 「우중(雨中)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

\* 택지 : 박은의 친구 이행(李衍)을 가리킴.

(나)  
 간 밤에 불던 바람 천산에 비 뿌리니  
 구십(九十) 동군(冬軍)이 춘광(春光)을 자랑하듯  
 미뿔손 천지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B]  
 나무 나무 잎이 피고 가지 가지 꽃이로다  
 방초(芳草)는 처처(處處)한데 춘풍 소리 들리거늘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을 열어 보니  
 객창에 수지화(樹持花)는 웃는 듯 반기는 듯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낙양 성중에 저 봄빛 한가지요  
 고향 원상(園上)에 이 꽃이 피었는가  
 지난해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  
 청준(淸樽)에 술을 붓고 꽃 꺾어 산(算)을 놓고  
 장진주(將進酒) 노래하고 무진무진 먹자 할 제  
 내 번화(繁華) 질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 볼 줄 알까  
 아침에 나쁜 밥이 저녁에 시장하니  
 박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쏘냐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아마도 이 고생이 수유간(須臾間)의 꿈이로다  
 전년 꽃 올해 꽃이 꽃빛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人事)는 다르도다  
 - 안조원, 「만연사」 -

(다)  
 영숙(永叔)은 장수 집안의 후예다. 그 선조 중에 나뉠일로 죽은 충신이 있으니 지금도 사대부들은 그 일을 슬피 여긴다. 영숙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쓰고, 옛일과 전거(典據)에 밝으며, 젊어서부터 말 타기와 활쓰기를 잘해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록 벼슬은 운세 때문에 막히고 말았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뜻은 죽히 선대의 위업을 이을 만하여 사대부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었다. 아! 영숙은 어찌하여 온 식솔을 이끌고 예맥(穢貳)의 땅으로 가려하는가?  
 전에 영숙은 나를 위해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봐 준 일이 있다. 산은 깊고 길은 험해 종일 가 봐야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곳이었다. 영숙은 나와 함께 갈대밭 가운데 말을 세우고 채찍으로 높은 언덕배기를 이리저리 구획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저기에다 울타리를 치고 뽕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해마다 좁쌀 천 석은 거둘 수 있겠습니다.”

시험 삼아 부시를 치자 바람 따라 불이 번졌다. 그러자 꿩이 푸드득 놀라서 날고, 새끼 노루가 앞에서 튀었다. 영숙은 팔뚝을 견어붙이고 그걸 쫓다가 시내에 막혀 돌아왔다. 이에 나를 보고 웃으며 이리 말했다.

“백년도 못 살 인생인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바위뿐인 곳에 살며 조밥 먹고 꿩, 토끼나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영숙이 기린협(麒麟峽)에 살겠다고 한다. 송아지를 업고 들어가 그걸 키워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그곳에 소금도 메주도 없어 아가위와 돌배로 장을 담가야 한단다. 그 험준하고 궁벽하기가 연암협보다 훨씬 심하니 어찌 같이 비교나 할 일인가. ㉠ 나는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늘 감히 떠나는 영숙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지언정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

-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

3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회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는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② [A]와 [B]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는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A]는 반어, [B]는 비유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A]는 시각적 심상이, [B]는 청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박은은 강직하고 울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박은의 시에는 인생의 비애가 나타나 있으며, 잔뜩 찌푸린 우울한 풍경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 ① ‘찬비’를 맞는 ‘국화’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작은 술동이’는 ‘시름’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뇌를 달래는 수단이겠군.
- ③ ‘문을 닫으니’는 세상을 대하는 강직하고 울곧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겠군.
- ④ ‘흰 머리 새롭구나’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였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적막한 새벽’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겠군.

35.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 씻고’는 봄 풍경을 본 후 눈물짓는 모습으로 화자의 ‘고생 슬픔’을 짐작케 한다.
- ② ‘수지화’를 대하는 반가움을 의인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 원상’은 ‘낙양 성중’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④ 지난날의 ‘웃음’은 오늘날의 ‘눈물’과 대비되어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 ⑤ ‘꽃빛’과 ‘인사’가 대비되어 인간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박지원은 정서적 유대가 깊었던 누이를 잃고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친한 벗을 잃은 것을 계기로 연암협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 글을 쓸 당시 박지원은 서울과 연암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나고 자란 곳을 떠난다거나 벗들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 ① ‘갈림길에서 망설인다’를 통해 글쓴이는 ‘연암협’과 서울의 생활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나는 것을 ‘감히~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글쓴이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갈등과 관련이 있다.
- ③ ‘그의 뜻’은 ‘영숙’이 ‘기린협’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영숙’이 ‘기린협’으로 가는 것을 ‘장하게 여긴다’에는 그의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에는 글쓴이가 ‘영숙’의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휴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것의 일종인 ‘스킨풋(skinput)’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피부를 터치 스크린처럼 이용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스킨풋의 장치는 손바닥이나 팔뚝에 메뉴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 주는 투영기, 사용자가 피부를 손가락으로 건드릴 때 발생하는 ㉠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진동 센서, 그리고 검출된 진동을 컴퓨터로 전송하는 연결 장치로 구성된다. 투영기에 의해 화면이 팔뚝이나 손바닥에 비칠 때 해당 피부 영역을 건드리면 이때 피부의 진동이 발생한다. 스킨풋은 이 진동으로 사용자가 건드린 피부의 위치를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것은 손가락으로 피부를 누를 때 위치에 따라 진동의 전달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팔뚝의 일정한 위치에 진동 센서를 부착하고 스킨풋을 시행할 때 각 피부의 위치에 따라 센서에 검출되는 진동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주파수의 성질들은 서로 달라진다. 그것은 각 지점마다 근육과 뼈 같은 신체 구성 성분의 위치와 모양이 서로 다르고 센서와 손가락으로 누른 지점까지의 거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피부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몇 가지 다른 형태의 진동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중 일부는 소리가 되어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간다. 남은 진동은 마치 파도처럼 피부 표면을 타고 전파되는 횡파와 몸속으로 전파되어 뼈를 진동시키고 다시 피부로 돌아오는 종파로 나뉜다. 이 종파와 횡파에서 만들어내는 진동의 주파수들이 위치 검출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횡파는 진동을 발생시킬 때 손가락이 누르는 힘의 세기와 누르는 피부 부위의 강도, 그리고 조직의 연성에 따라 진폭이 달라진다. 누르는 세기가 같을 때는 누르는 속도가 빠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많이 발생한다. 주파수가 높은 진동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전달되며 전달의 정확도도 그만큼 높다. 또한 횡파는 접촉하는 부위의 살이 두꺼울수록, 피부가 부드러울수록 전파되는 진동의 진폭이 커져서 멀리 전달된다. 횡파는 종파보다 진폭이 큰 진동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피부 표면에서 큰 진폭으로 출렁거리며 진행하는 횡파와 달리 종파는 피부 조직과 그 아래 몸속의 연조직을 지나 뼈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 종파는 뼈를 진동시키게 되고 이 진동은 다시 피부로 되돌아온다. 종파는 횡파에 비해 변형이 작고 고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법칙을 잘 따른다. 종파는 횡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주파수를 진동 센서가 감지하고 연결 장치가 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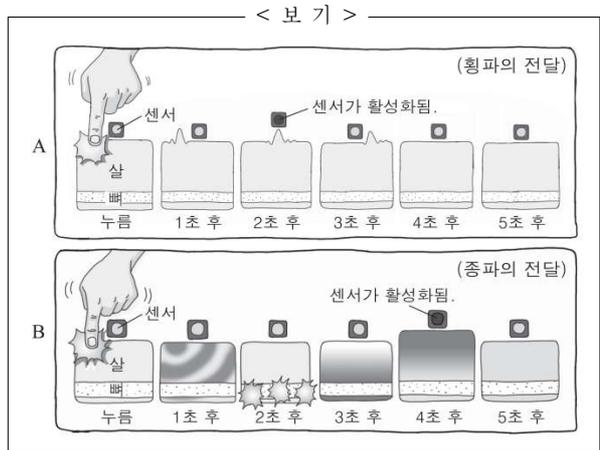
스킨풋은 아직까지는 초기 개발 단계로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가능하다. 사람마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팔꿈치와 손가락 사이에서는 평균 95% 정도의 정확도로 입력하려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수준은 현재의 키보드를 대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면 모니터나 키보드가 필요 없는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인터페이스 : 사용자인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주는 장치.

37. ‘스킨풋’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컴퓨터의 입력 장치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사람의 신체에 장치를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용되는 장치는 투영기, 진동 센서, 컴퓨터 연결 장치로 구성된다.
- ④ 사용자의 근육량, 뼈의 굵기 등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생긴 진동 에너지의 양과 센서에 검출된 진동 에너지의 양은 동일하다.

38. <보기>는 ‘스킨풋’에서 같은 세기로 눌렀을 때 횡파와 종파가 측정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는 A보다 진동의 진폭이 더 크다.
- ② B는 A보다 진동의 주파수가 더 높다.
- ③ A는 빠르게 누를수록 더 잘 전달된다.
- ④ A는 피부가 부드러울수록 더 잘 전달된다.
- ⑤ A는 누르는 부위의 살이 두꺼울수록 더 잘 전달된다.

39. ㉠에 대응하는 것을 <보기>의 a ~ c에서 고르세요?

< 보 기 >

현재 사용 중인 터치스크린은 ㉠ 전기신호를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터치스크린에는 ㉡ 손가락의 누름을 감지할 수 있는 ㉢ 기판이 있다. 그리고 전기신호를 전달해 주는 ㉣ 트랜지스터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 위치 검출판, 그 위를 덮고 있는 중간층과 보호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터치판은 화면에 덧씌워져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과 연동되게끔 구성된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과 참판 최홍일의 딸 연화가 혼례를 올리는 날, 임금은 지경에게 귀인 박씨의 딸 응주와의 혼례를 하교한다. 이를 거부한 지경에게 임금은 위력으로 혼례를 강행하지만 지경은 응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화와와 만남을 지속한다.

상(上)이 웃으시고 윤현에게 편지하사, 응주 고단함을 위로하라 하시고, 최홍일에게 전교(傳敎)하사 가로되,  
“당초에 네 딸을 다시 혼인시키지 못했으면서도 이제 방자히 지경을 맡고 있음은 분에 넘치니, 이후 다시 이러한즉 사죄를 당하리라.”

하시니 공이 황궁 사죄하고, 윤공이 지경을 몹시 꾸짖으며 응주궁에 보내어 여러 날을 지키고, 최공이 의견을 내어 윤공더러 이르되,

“최씨 병들어 낫지 않는다.”

하더니, 여러 날이 됴에 위종타 하는지라. 지경이 들고 즉시 가니 최공이 크게 노하여 가로되,

㉔ “네 또 와 나를 죽이려 하느다. 내 딸이 병들어 죽으나 사나 네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밀어내어 문을 닫으니, 웃으며 쫓겨 밖에 나와 조카더러 물으니, 고모의 병이 중하여 곡기를 끊고 눈을 뜨지 못한다 하거늘, 그 말을 듣고 크게 슬퍼 가만히 들어가고자 하되 정당(正堂)에 누웠다 하는지라. 볼 길 없어 돌아와 편지하니, 답장도 없어 주야 번뇌하더니, 하루는 윤공이 가로되,

“최씨 병을 보니 너로 인하여 신세 참담함을 슬퍼하여 병이 난즉 아마도 살지 못할까 싶더라. 그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으랴.”

지경이 묵연히 되하니, 이윽고 최씨 부음이 와 일가가 통곡하고 지경이 실정 통곡하여 엎어져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깨어 일어나 말을 타고 바삐 들어가더라. 최공이 하인을 명하여 문에 들이지 말라 하고 윤공과 다른 사람들은 들이니, 지경이 뒤를 쫓아 들어가려 한즉, 여러 하인이 등을 밀어내고 문을 닫으며 이르되,

㉕ “주인께서 가라사대 내 딸이 구태여 저와 혼인 아니 하려 하거늘, 우격으로 혼인을 지내고 내 딸이 저로 인하여 죽었으니 붙이지 말라 하시더이다.”

지경이 노하여,

“내 미워함이 아니야. 사세(事勢) 그렇게 되었거늘 어찌 그토록 험하게 구는고.”

백 가지로 들어가려 하되 마침내 들지 못하고, 안에서 곡성이 진동하니, 절로 눈물이 비 오듯 하여 하인청에서 지내더라.

이튿날 또 잤으나 한결 같이 들이지 아니하니, 하릴없이 헐소청(歇所廳)에서 성복(成服)하고 돌아와 부형을 대하여 최가의 일이 궤이함을 고하니, 공이 가로되,

㉖ “나와 다른 사람들은 들이되 너를 아니 들이기는 상사에 조관 재상이 많이 모이매 너를 거절함을 보임일러라.”

지경이 가로되,

“그건 너무 과도하나이다. 이미 죽은 후 무슨 시비 있을 것이라 그리하리이까. 최공의 바란 것이 병일러니, 이 일을 보건대 오히려 작심이로소이다.”

지경이 몹시 서러워하여 병이 나 누웠으나 잠깐 진정하여 낫거늘, 최부에 이르니 이날에야 들이더라. 바삐 빈소에 들어가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다가 기운이 막히니 부인과 한림이

거우 진정케 하고 서로 참담함을 인사하고 비통하다가, 차후로 응주 박대 더욱 심하더라. 응주와 박씨는 최씨 죽은 것을 가장 기꺼워하고, 상은 들으시고 병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알오사, 최공을 불러 전일 엄책하심을 누우치시니, 최공이 감은하여 지경 속임을 넌지시 아되며, 귀인께도 이같이 청하니 기꺼워 웃으시더라.

세월이 덧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니 지경이 더욱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가(自家) 선산에 묻기를 청하니, 최공이 가로되,

“이미 나라에서 이리하여 계시니 어찌 네 집 선산에 가리요. 부질없이 유의 말라.”

지경이 더욱 설위하는 중 응주 박대 갈수록 심하여 측량치 못할라.

광음이 여류하여 최씨 일주기(一週忌) 돌아오매, 심사가 더욱 비감함을 이기지 못하여, 조카 등을 데리고 글도 가르치며, 이르다가 입번(入番)하는 날은 대군(大君)도 글을 가르치니, 대군은 명묘(明廟)시니 공경하고 사랑하시더라.

㉗ 박씨는 지경이 미워 바로 보지 아니하니, 지경 또한 바로 보는 적이 없더라.

이러구러 최씨 삼년상이 지나니, 지경이 설움을 이기지 못하여 최부에 가 침소 밖에 이르러 배회하며 혼잣말로 이르되,

‘중적은 의구하되 사람이 없으니 이 설움을 어찌 견디리요.’

두루 생각하니 심회 비감함을 정지 못하여 눈물이 한삼을 적시는지라. 응주는 갈수록 싫고 최씨는 오렘수록 잊을 길 없으니, 이십 세 남자가 일생 홀아비로 어이 견디리요.

자연 신세를 비탄하니, 최공의 손자 선종이 나이 십 세라. 따라다니다가 이 거동을 보고 물어 가로되,

“숙부는 어찌 이대도록 우시나이까.”

지경이 답하여 가로되,

“네 고모를 생각하고 우노라.”

선종이 가로되,

“고운 부채와 필묵을 주면 고모 있는 곳을 아니 이르리이까.”

지경이 가로되,

“죽은 사람 간 곳을 네 어이 아는가.”

선종이 가로되,

㉘ “조부께서 숙부가 매양 본다 하고 죄다 감추었나이다.”

지경이 마음속으로 뜻밖의 일에 몹시 기뻐하여 즉시 종을 보내어 색부채와 필묵을 갖다가 주고 달래어 물으니, 선종이 가로되,

“나를 따라오소서.”

뒤를 따라가니, 동산 너머 두 집 지나 큰 집이 있어 대문을 잠갔거늘 동산 협문으로 들어가니 최씨 바야흐로 종을 시켜 보거늘, 지경이 바로 들어가 부인을 붙들고 가로되,

㉙ “이 어인 일고. 당명황(唐明皇)의 봉래산(蓬萊山) 꿈<sup>1</sup>인가, 초양왕(楚讓王)의 무산(巫山) 구름<sup>2</sup>인가.”

최씨 역시 몹시 놀라며 감탄하여 눈물이 샘솟듯 하니, 모든 시비 이 거동을 보고 슬퍼 아니하는 이 없더라.

- 작자미상, 「윤지경전」 -

\* 당명황(唐明皇)의 봉래산(蓬萊山) 꿈 : 당 현종이 죽은 양귀비를 보고 싶어 했다는 고사.

\* 초양왕(楚讓王)의 무산(巫山) 구름 : 초양왕이 무산의 선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고사.

40.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1점]

- ① 용주는 자신의 질투로 최씨가 죽음에 이르자 이를 후회하고 있다.
- ② 최공이 마련한 계책은 박씨와 미리 계획하여 면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 ③ 임금은 최씨의 장례가 끝난 후 지경을 용주와 맺어주기 위해 최공을 불렀다.
- ④ 윤공은 최씨의 장례에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인 지경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지경은 최씨의 묘를 자신의 선산에 마련하고자 했으나 최공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② ㉡ :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
- ③ ㉢ : 정황을 들어 상대가 의아하게 생각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 :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를 놀라게 하고 있다.
- ⑤ ㉤ :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를 만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42.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절개가 있었다. 어느 날, 개루왕이 도미를 불러 그의 아내도 낚물래 피면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자, 도미는 자신의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왕은 신하를 자신처럼 꾸며 그의 아내에게 보내, 도미가 내기에 저 자신의 후궁이 되어야 한다고 속이자 그녀는 몸종을 단장시켜 보내 이를 모면했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왕은 도미를 멀리 보내버리고 그녀를 취하려 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궁을 탈출했다. 강가에 도착한 그녀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자 조각배가 나타났다. 배가 천성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극적으로 만난 두 사람은 고구려에 가서 살았다.

- ① <보기>의 '도미'와 달리 위 글의 '지경'은 '최씨'의 정절을 지키려다가 시련을 당하는 인물이군.
- ② <보기>의 '신하'에 비해 위 글의 '최공'은 임금을 의식하여 주인공들을 적극적으로 이별하게 하고 있군.
- ③ 위 글의 '최씨'와 달리 <보기>의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인물이군.
- ④ 위 글의 '선중'과 <보기>의 '하늘'은 모두 주인공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군.
- ⑤ 위 글의 '상(上)'과 달리 <보기>의 '개루왕'은 계책을 직접 마련하여 주인공들에게 시련을 주는 인물이군.

43. '지경'이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박씨와 ( )이므로 서로 마주 대할 일이 없습니다.”

- ① 막역지간(莫逆之間)                      ② 문경지교(刎頸之交)
-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 ⑤ 관포지교(管鮑之交)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생어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인 어근과,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인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파생어의 의미가 이와 같이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생어의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규칙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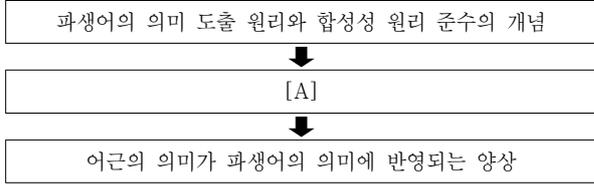
파생어 '갈레질'은 그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 파생어의 의미는 그 어근인 '갈레'의 의미와, 동작이나 행동을 이르는 말인 접사 '-질'의 의미로부터 쉽게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파생어의 의미가 항상 규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비질'은 '곡식의 검부리기, 먼지 따위를 날리려고 키 따위로 부쳐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는 곤충인 '나비'의 의미와 '-질'의 의미의 단순한 합이라고 볼 수 없다.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다의어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어에 그대로 다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어근 '먹-'과 접사 '-이'가 결합된 말인 파생 명사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다'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 보낸다.',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반면, '먹-'과 접사 '-이'의 결합형인 '먹이'의 의미는 '동물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어야 할 거리'나 '사육하는 가축에게 주는 먹거리'로 한정된다. 이러한 예를 보면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의 모든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파생어의 의미는,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위의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이'의 의미는 '먹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단어의 중심적 의미로,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의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어근의 의미 중 반드시 하나만이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길다'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다.' 등의 의미를 갖는데, '길이'는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와 '어느 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등의 의미를 갖는다. '길다'의 여러 의미가 파생 명사인 '길이'의 여러 의미에 반영된 것이다.

44. 위 글의 내용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합성성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 ② 합성성의 원리를 분석하는 여러 이론 검토
- ③ 합성성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④ 합성성의 원리 준수 여부에 따른 과생어의 양상
- ⑤ 합성성의 원리에 기초한 어근의 의미 변화 설명

[45 ~ 46] <보기>와 관련하여 45번과 4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 국어대사전 검색

**풀이**

「1」 모르거나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밝히어 말하는 일.  
 「2」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 내는 일. 또는 그 결과.

**풀다**

「1」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2」 어떤 감정이나 분노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3」 마음에 맞혀 있거나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  
 「4」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

**-이**

「1」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4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1」 ~ 「4」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풀이 「1」’은 어근과 접사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 ③ ‘풀이’의 ‘-이’는 ‘먹이’의 ‘-이’와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
- ④ ‘풀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과생어이다.
- ⑤ ‘풀다’에서 ‘풀-’은 다의적인 어근이다.

46.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사의 의미가 과생어의 의미를 확장시킨 사례로 제시한다.
- ② 과생어의 의미에 의해 어근의 의미가 결정된 사례로 제시한다.
- ③ 접사의 의미가 과생어의 의미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한다.
- ④ 과생어에서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⑤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가 과생어의 의미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한다.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존의 분자 생물학은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개별적인 기능을 알아내는 ㉠ 환원주의적 방식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유기체는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다수의 화합물들이 복잡한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주의적 접근만으로 생명 현상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시스템 생물학이다.

시스템 생물학은 최근 들어 박테리아에서 인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생물체에 대한 ㉡ 생물학적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시스템 생물학자들은 축적된 생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생명 현상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들 간에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포괄하는 시스템 내에 어떠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생명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명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후, 그 ㉢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상 심장을 최초로 개발한 데니스 노블은 이러한 방법으로 심장이 박동하는 현상 속에 작동하는 ㉣ 심장 근육 세포의 피드백 효과를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심장의 박동은 세포 내의 단백질 채널을 통해 이온의 흐름이 생기면, 그것이 심장의 근육 세포에 전압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발생된다고 설명되어 왔다.

노블은 심장 박동이 이러한 단일의 인과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채널이라는 구성 요소와 그것의 상부 구조라 할 수 있는 근육 세포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살아 있는 심장을 컴퓨터로 모델화한 후,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둔 채 피드백 효과와 관련된 것만을 수행하지 않도록 만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의 전압 변화와 단백질 채널인 칼륨 채널, 칼슘 채널, 그리고 혼합 이온 채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처음 1초 동안에는 세포 전압의 진동과 이에 대응되는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네 차례 있었다. 네 차례의 진동 후 세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다. 단백질 채널의 진동 중에 한 개라도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단백질 채널은 원래의 진동을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험해 본 결과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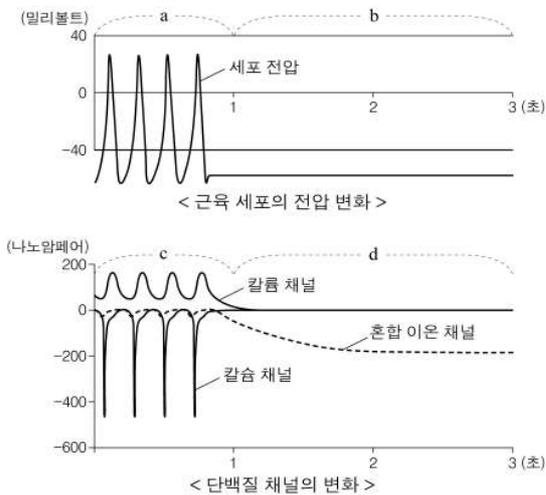
멈추었고, 각 경우의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선(線)들이 편평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㉔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 심장의 박동이 설명될 수 없으며, 심장의 근육 세포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심장의 박동을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생명 현상이 유전자나 단백질에서부터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로 향하는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와 반대되는 ㉕ 아래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도 생명 현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노블은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환원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체 내의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7.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시스템 생물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
- ② 기존 분자 생물학의 주된 연구 방식
- ③ 시스템 생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
- ④ 심장 박동 현상에 대한 노블의 실험 과정
- ⑤ 생명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노블의 주장

48. 다음은 위에 소개된 실험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진동이 b의 편평해진 선으로 바뀐 것은, 실험자의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것이다.
- ② a와 c의 진동이 네 차례 지속되는 것은,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c의 진동이 d의 편평해진 선으로 바뀐 것은,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 ④ 칼슘 채널의 진동이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b와 d의 편평해진 선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 ⑤ b와 d의 편평해진 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 채널의 영향에 의해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할 것임을 보여준다.

49. ㉔ ~ ㉕ 중, 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0. <보기>에 대해 '노블'이 평가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오늘날 유전자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로봇' 속에 안전하게 거대한 집단으로 떼를 지어 살면서, '원격 조정기'를 통해 그것을 조작하고 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있다. 그것들의 유지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유기체인 우리는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

- ①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체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② 유전자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유기체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 한다는 한계가 보인다.
- ③ 시스템 생물학의 관점에서 유전자와 유기체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유전자와 유기체 사이의 상호 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유기체의 생명 현상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